

4·11 전남 단체장 보선 대진표 윤곽

민주당 지지표 분산 여부 승패 가를 듯

순천시장

순천시장 보궐선거는 5명의 후보가 2년 임기의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는 이은(55) 전 전남도 정부특별보좌관을 최종 후보로 선출하면서 순천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짜졌다.

정에서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조 전 시장은 일찌감치 민주당을 탈락해 무소속으로 표밭을 갈고 있다.

허정인(55) 전 전남도 정부특별보좌관을 최종 후보로 선출하면서 순천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짜졌다.

하지만, 조 전 시장과 이 전 장관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아 보선에서 이들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후보 3명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성향 표심이 어느 정도 갈릴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도 선전을 장담하고 있어 민주당 성향 후보들의 난입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이번 선거가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데다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호

Table with 5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약력. Candidates include 허정인, 이수근, 박광호, 이은, 조충훈.

\* 후보는 가나다 순

남 유일의 선거구인 만큼 통합진보당 바람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동구 시민후보 김강렬 대표 추대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범민주시민후보 추대위원회'는 11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시민배심원 면접심사와 현장투표를 통해 김강렬(51)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4·11 총선 광주시민후보로 추대했다.

통합진보 김관희 동구 예비후보 등록



통합진보당 김관희(31)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동구지부 사무처장이 4·11 총선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비용 마련 '김선동 펀드' 개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 선거대책본부는 4·11 총선 비용마련을 위해 김선동 펀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령에 '한우불고기 클러스터 국비 유치'



민주당 통합국령에 장흥·강진·영암 예비후보는 11일 한우농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과사 직전의 축산업과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일기 내에 '한우 불고기 클러스터 국비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득, 지역발전 공약 제시



민주당 통합김영득 순천·곡성 예비후보는 11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과 곡성군의 지역현안 및 순천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바우처 제도 활성화 ▲순천·곡성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농촌과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질적 향상 ▲동부권 문화·관광콘텐츠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환경 농산물 경영력 향상 및 유기농 마을 확대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친환경 농산물 사먹기 캠페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민주-진보-무소속 3파전... 남악 표심 좌우

무안군수

무안군수 보궐선거는 민주당 통합 김철주(54·전 전남도의원)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호산(48·무안 황토 고구마사업단 대표) 후보, 무소속 진상열(59·전 무안군청 과장) 후보 등 3자 대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철주 전 도의원은 경선에서 나상욱(58)·박만호(60) 후보를 꺾고 지난 10일 민주당 통합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약사출신인 김철주 후보는 전남도 교육위원과 전남도의원 등을 역임하며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력에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남악신도시의 친환경생태시범도시 완성 ▲영산강변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유역관광 산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 환경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호산 후보는 무안군에서 농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한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농민운동가답게 농업정책을 1순위에 두고 무안농업의 탁월한 경쟁력을 키워나겠다는 포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상열 후보는 38년간을 무안군청에서 재직하며 주민의 애환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양승일 전 전남도의회원이 아직까지 향우 거취를 밝히

Table with 4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약력. Candidates include 김철주, 김호산, 진상열.

지 않고 있어 양 전 의원의 행보에 따른 변수도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진준기자 jun@

강진원 '독주'속 차봉근 무소속 출마 변수

강진군수

황주홍 전 군수의 총선 출마로 인해 치러지는 강진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10일 민주당 통합 후보로 선출된 강진원(52) 전 전남도 기업도시산업의 '독주'가 예상된다.

민주당 통합 강진원 후보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황주홍 전 군수에게 석패한 강 후보는 2년여 동안 강진에서 바락 민심을 흠으며 '와신상담'해온 만큼 경선 과정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왔었다.

강 후보는 청렴성과 탁월한 행정 능력, 중앙부처의 인맥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강진군을 전국 최고의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차 전 의장이 강진원 후보에 맞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차 후보는 그동안 강진에서 살아왔고 강진에서 정치를 해온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Table with 4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약력. Candidates include 강진원, 차봉근.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호남랜드, featuring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함' and '무안읍 휴게소'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and '상무랜드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군 변산반도 펜션 전문)', specializing in vacation homes and properties in the Binsan Peninsula area.